

# 中 진출기업 절반 이상 경영 악화... 중장기 전망도 어두워

**산업연구원 中진출 韓기업 조사**  
전년대비 매출 감소 응답 58.6%  
대규모 봉쇄 등 대내외 요인 영향  
향후 5년 내 철수 고려 2.7% →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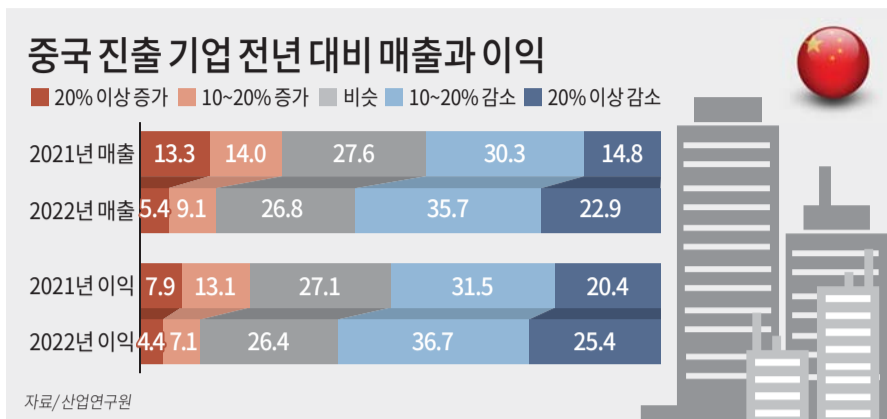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 터를 잡고 있는 중소기업 등 한국의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몸집도 작아지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등 기업들 경영 환경이 대부분 악화되면서다.

특히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의 내부 환경이 더 나빠지고, 중장기적으로 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거나 추가 투자,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귀담아 들을 만하다.

이같은 내용은 산업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 406곳을 대상으로 2021년과 2022년의 경영 환경에 대해



조사, 비교·분석한 자료에서 나왔다. 응답기업의 91%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예상)이 ‘감소’(감소+크게 감소)했다는 기업은 절반이 넘는 58.6%였다. 이는 2021년(2020년 대비) 당시 ‘감소’했다는 비율(45.1%)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증가+크게 증가)했다는 답변은 14.5%에 그쳤다. 2021년의 경우도 매출 ‘증가’(27.3%)는 ‘감소’(45.1%)보다 크게 낮았다.

2022년 영업이익이 ‘감소’(예상)했다는 응답도 62.1%로 ‘증가’(〃)했다는 답변(11.5%)보다 월등히 많았다. 26.4%는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도의 경우 ‘감소’ 51.9%, ‘증가’ 21%, ‘비슷’ 27.1%였다. 지난해 매출과 이익이 하락한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이다.

매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1순위)으로는 ▲현지 수요 부진 ▲현지 경쟁 심화 ▲코로나19 장애 ▲수출 수요 부진 등의 순이었다.

산업연구원 사공목 연구위원은 “중국 진출기업이 인지하는 2022년 중국 내

경영환경은 ‘제로코로나정책’으로 인한 봉쇄조치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중국 내 경기위축 등의 이유로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2022년 상반기부터 지속돼 온 중국정부의 봉쇄 조치와 20차 당대회로 인한 긴장감 등 중국 내 요인과 글로벌 경기둔화라는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향후 전망이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동률의 경우 ‘80% 이상’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13.8%에 그쳤다. ‘60~80%’는 34.2%, ‘40~60%’는 36% 등으로 가동률이 대부분 낮은 모습이다. 제조업의 경우 ‘80% 이상’ 가동률은 12.4%로 더욱 떨어졌다. 코로나19, 미국과 중국간 분쟁 등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향후 2~3년 중국내 사업 전망에 대해서 ‘현상 유지’가 67%로 가장 높은 가운데 ‘축소’(21.4%)가 ‘확대’(7.9%)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5년 이후의 전망에 대해 ‘철수를

고려한다’는 답변은 2.7%에서 9.6%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내 ‘생산비용 상승’(38.3%), ‘경쟁 심화’(22.3%)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미·중 분쟁’(16%), ‘승계곤란’(10.6%) 등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중국의 대내환경 변화에 대해 ‘악화’(급격 악화 포함)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 비중은 79.3%로 2020년 조사 당시(58.6%)보다 크게 증가했다.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내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중국정부 정책(24%) ▲수요시장 변화(21%) ▲생산비용 상승(21%)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진출기업의 공급망은 한·중 간 독립된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부 간 협의체 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규제 등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 정책협의 채널을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향후 중기 전망이 비관적인 가운데 신규 대중국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구조조정기엔 이에 대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BBC기업 73% “올해 공급망 호전 어려울 것” 윤홍근 회장, ‘신인재경영’ 선포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제너시스 BBQ 그룹)

### 대졸 신입사원 연봉 33.5% 인상

**상의 BBC 제조업 공급망 체감도 조사**  
작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절반 이상  
위험요인엔 ‘러·우 전쟁 장기화’ 꼽아

새해에도 공급망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차전지(Battery)·바이오(Bio)·반도체(Chip)산업군(BBC)의 기업 73%가 ‘공급망 호전 난방’을 예상했다. 또한 BBC 기업의 63%는 ‘작년 대비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BBC 제조기업의 공급망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비 새해 공급망 상황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작년과 비슷할 것’(51.7%)으로 답했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7.3%, ‘악화될 것’이란 답변은 21%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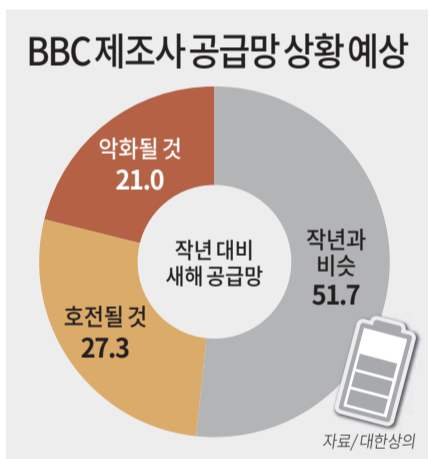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순으로 공급망 상황의 호전을 예상한 비중이 낮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엔데믹으로의 전환 등 긍정적 요인들에 힘입어 공급망 상황의 호전을 예상한 기업 비중이 악화로 전망한 기업보다 많긴 했지만, 공급망 피해가 심했던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답변까지 포함하면 BBC 산업 전반이 공급망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작년 공급망 위기 및 애로로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0곳 중 6곳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그렇다”(62.3%)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재고관리 애로’(5점 만점에 3.8점, 높을수록 피해정도가 큼), ‘원료 조달 차질에 따른 생산애로’(3.5점), ‘물류 차질에 따른 판매·수출 애로’(3.4점) 등 분야에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인됐다.

BBC 기업들이 새해 가장 우려하는



공급망 위협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BBC 기업들이 ‘공급망 위험요인별 영향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5점 만점에 3.9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데 이어, ‘미·중 패권경쟁 등 자국우선주의 심화’(3.8점),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3.7점) 등을 경계하고 있었다.

BBC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한 대응 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이 ‘이미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책 마련 중’(48.3%)이라고 답했으며, ‘현재 대응없고 있지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도 39%에 달했다. ‘대응 계획 없다’는 답변은 12.7%에 그쳤다. 가장 우선순위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응책은 ‘조달·판매처 다각화’(43.9%), ‘기술·경쟁력 강화’(23.2%),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10.3%), ‘공급망 내 현지화 전략 확대’(8.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망 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화 전략’ 차원에서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검토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곳 중 4곳에 해당하는 기업이 ‘검토한 적 있거나 검토 중’(39.7%)이라

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45.2%), ‘반도체’(42.2%), ‘제약바이오’(30.7%) 순으로 응답비중이 높았다.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거래처 발굴 지원’(35.3%), ‘대·중소기업간 공급망 협력 생태계 구축’(16.3%), ‘보조금 및 세액공제 확대’(14.7%)를 차례로 꼽았다.

새해 BBC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비 새해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소극적 긴축 경영을 계획 중’(51.7%)이라고 답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답변은 27.3%, ‘적극적 확대경영’이란 답변은 21%로 집계됐다.

BBC 분야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줄일 것’이라는 응답비중(62.7%)이 ‘늘릴 것’이란 답변(37.3%)을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68.8%), ‘제약바이오’(67%), ‘이차전지’(48.8%) 순으로 투자감소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았다.

수출에 대한 전망 역시 ‘작년 대비 감소’를 예상한 기업의 비중(57.3%)이 ‘증가’(42.7%)보다 많았으며, 채용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43%)으로 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은 가운데 ‘축소’(41.3%) 의견이 ‘확대’(15.7%) 전망을 앞질렀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새해에도 공급망 분절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조달처 다각화와 차세대 기술개발, 생산기지 이전 등 기업들의 극복 노력도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투자분이 생길 텐데,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초임 연봉 4540만원... 업계 최고 수준  
“인재경영 통해 최고 외식기업 혁신”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세계 최대, 최고의 외식 기업으로 혁신하는 신(新)인재경영시대를 열겠다고 4일 밝혔다.

BBQ는 작년 기준 3400만원이었던 대졸 신입사원(현장 운영과장(S/V, 슈퍼바이저), 영업과장(F/C,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기준)의 연봉을 33.5%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졸 초임 연봉은 약 4540만원이 된다. 이는 평균 3300만원의 치킨 프랜차이즈를 훌쩍 뛰어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 수준으로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에 육박하는 파격적인 대우다.

윤 회장은 어두운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수한 인재가 기업을 살린다’는 인재경영 철학에 따라 6개월간의 고심 끝에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윤 회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새로운 혁신 경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최고의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세계 최대, 최고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선택”이라며 “개인 역량 강화와 성과 달성 중심의 조직문화로 완전히 개편하고 능력있는 인재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신인재경영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계 및 국내외 경기침체가 전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제너시스BBQ

망됨에 따라 국내 유수의 기업과 금융사들이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는 현 상황에서 타 기업들과는 달리 파격적인 인재경영 및 위기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특유의 공격경영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지난 1일 전국의 패밀리(가맹점주)와 임직원이 함께한 신년식에서 윤홍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파용구우(破蕩救友) 용기를 깨뜨려서 친구를 구한다)의 자세로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종합 IP 외식 문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새해 포부를 전했다.

올해 경영목표로 ▲국내시장 독보적 1위 달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IP(지식재산)·콘텐츠 기업으로 확장 ▲기민한 조직문화(에자일 BBQ) 개선을 꼽기도 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2년은 글로벌 시장에서 K-치킨을 넘어 K-푸드의 대표 브랜드로 소개되며 BBQ의 경쟁력을 입증한 해”였다고 “올해는 세계 1등 기업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BBQ’로 본격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